

노인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헌신과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 활동이론을 중심으로 -*

김 미 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정 진 경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요 약]

활동이론은 노년기 역할상실 혹은 감소에 따른 대체적 역할로서 새로운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노년기의 생활만족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이론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활동이론을 기초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노년기 역할감소에 따른 대체적 역할로서 노인의 생활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대상은 서울시내 23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활동하고 있는 55세 이상 노인자원봉사자 192명이다. 활동이론은 직업유무, 기구형태, 봉사활동 성취내용으로 조직화하였으며, 분석결과, 직업유무는 활동빈도와 활동시간에, 봉사활동 성취내용 중 사회적 성취는 지속기간에만 영향을 미쳤으며, 기구형태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지속기간이나 활동빈도, 활동시간 등 자원봉사에 대한 헌신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활동이론 변수 이외에 봉사활동에 대한 보상, 건강상태, 교육수준, 성별에 의해 설명될 수 있었으며, 노인자원봉사자의 생활만족도에는 동거가족형태나 경제수준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활동이론만으로 우리나라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전적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노인들에게 있어 자원봉사활동은 시간의 투입보나라는 봉사활동을 통한 성취감과 이를 활동에 내한 자지 혹은 관심 등의 질적인 측면이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 자원봉사 분야에 있어 활동이론을 기초로 한 최초의 실증연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나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활동이론, 지속이론, 노인자원봉사자, 자원봉사활동 헌신, 생활만족도.

* 본 연구는 두뇌한국 21(BK21) 지원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음.

1. 서론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자 개인에 대한 혜택뿐 아니라 사회의 안녕과 통합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 인구는 '93년 6.9%(통계청, 1994 : 전국 15세 이상), '99년 14%, 2002년 16.3%(불런티어 21, 1999 : 2002, 전국 20세 이상)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이를 자원봉사자 가운데 2002년 현재 50세 이상의 중·고령 자원봉사자는 21.1%에 달하고 있으며(불런티어 21, 2002). 행정자치부의 전국 200여개 시·군·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진계한 결과에서도 전체 자원봉사자 중 50세 이상의 노인층이 21%(60세 이상 6.4%)를 차지하고 있었다(행정자치부, 2002). 전반적으로 사원봉사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학력의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노인 자원봉사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노인층의 자원봉사활동은 타 연령층에 비해 독특한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즉, 노인들은 경제활동이나 양육과 같은 일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이로 인해 자원봉사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긍정적인 경험을 함으로써 노년기 생활의 만족이 증진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이는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이 퇴직이나 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서의 역할의 상실 혹은 감소에 따른 대체활동으로서 기능을 한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많은 대중매체와 학자들은 노인들에게 있어 자원봉사활동의 긍정적인 측면을 묘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노인 개인에게 주는 이익으로는, 퇴직으로 상실되었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보충하고, 사회일선에서 물러나 상실되기 쉬운 자신의 사회적 가치성을 회복하거나 유지시켜 주어 사회에 유용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가치를 갖게 하며, 긍정적인 자아상 유지와 소외감 극복 및 자기설현을 돋고 창의성과 책임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장인협·최성재, 1996 : 225).

또한 사회정책 차원에서도 노인 자원봉사활동은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건강한 노인들의 여가 활용을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꾸준히 확장되고 있으며, 노인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시킴으로써 중요한 사회자본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노인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에서의 실증적 조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인구의 50% 이상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되고 있는 사실이다(Chambre, 1984 : Kim and Hong, 1997 : Willigen, 2000).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주된 연구는 1995년 이후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이론적 설명과 노인자원봉사의 활성화 방안 등 정책연구에 치중해 있다. 또 조사연구로는 노인자원봉사자들의 현황과 실태조사를 중심한 기술적 연구가 많았다. 보다 최근에는 석사학위 논문을 통하여 노인자원봉사 영역에서 보다 정교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원봉사의 동기, 자원봉사의 지속 및 만족 요인, 노인 자원봉사활동과 생활만족감 또는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

로 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이 우리나라 노인자원봉사 분야에 있어 다양한 논의의 주제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조사대상이나 지역이 지극히 제한적이며, 이론과 실증분석과의 연계가 다소 미흡한 편이었다.

특히 선행연구들에서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과 의의를 강조하는 이론적 기반으로 모두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을 제시하고 있으나, 과연 우리나라의 노인자원봉사활동이 활동이론의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활동이론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노인자원봉사자들이 노년기 역할상실 혹은 감소로 인한 대체적 역할로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또 그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의 헌신(commitment) 정도가 노인의 생활만족감을 증진시키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주요 연구질문에 관심을 두고 있다.

첫째, 자원봉사활동이 노인의 기존 역할에 대한 대체활동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가이다. 이를 위해, 노인자원봉사자들 중 현재 직업유무, 동거가족형태, 자원봉사 활동 성취내용을 활동이론변수로 선정하여 이들 변수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헌신정도가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헌신정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증가하는가이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활동 지속기간과 활동빈도 및 활동시간에 따라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활동이론변수와 더불어 다양한 인구학적 변수 및 봉사활동 변수 가운데 노인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헌신 및 생활만족도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자원봉사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봉사활동 헌신 변수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시각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이론은 활동이론(activity theory)과 지속이론(continuity theory)이라 할 수 있다.

활동이론은 중년기 이후의 활동수준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노년기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노인의 행복감은 노년기 이전의 상실 혹은 김소된 역할에서 다른 것으로 대체될 때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노년기 물러나야만 하는 역할이란 퇴직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등, 직업 혹은 사회적 역할로부터의 퇴조를 의미하는 것이다(Havighurst et al. 1968). 따라서 노후에 생활만족과 아녕감을 얻기 위해서는 노년기 상실된 역할활동을 대체할 만한 다른 활동에의 참여가 필요하며(장인협·최성재, 1996 : 115), 노후에 포기해야만 하는 기존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활동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윤미혜, 1995 : 15).

이때 노년기의 대체적 역할로서 자원봉사활동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노년기 중요한 역할의 상실이나 감소가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Chambre, 1984).

또 활동이론은, 중년 이후 노인의 생활만족과 노인의 안녕감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지함으로써 증진될 수 있다(Herzog et al, 1989)고 한다. 따라서 노인들이 생산적인 일에 머물거나 유지할 때 혹은 새로운 사회망을 창조하면 사회적 역할로부터 분리된 노인들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 진다(Adelman, 1994). 이러한 활동이론이 계속 유의미한 예측력이 있다면 자원봉사는 노인의 전반적 안녕감(well being)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더 나아가 봉사활동에 더 투입될 수록(봉사기간과 1회 봉사시간 등) 노인의 생활만족감에 대한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가정이 성립된다(Willigen, 2000). 특히 퇴직한 노인이나 배우자를 잃은 노인들은 사회적 역할상실이나 가족상실을 보상하려고 자원봉사에 더 참여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Luciani, 1993 ; 박주문 1999).

지속이론(continuity theory) 역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의미 있게 설명하는 이론이다. 활동이론이 노년기에 이르러서 새로운 역할대체를 통한 계속적인 활동을 강조한 반면, 지속이론은 전 생애를 통한 성장발달의 연속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개인의 인성적 특장에 의한 노년기 대처·적응과정을 설명하고 있다(김미혜·서혜경, 2002 : 42). 예를 들어 젊을 때부터 소극적이거나 비활동적이었던 사람은 노년기에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며, 항상 활동적이고 적극적이었던 사람은 이를 지속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누구나 평생을 두고 일관성 있는 태도와 행동유형을 갖거나 감으로써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한다는 것이다(한국노년학회, 2000 : 95).

지속이론의 시각에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은 이전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노년기에 와서 더 확장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지속이론에 의하면 노인의 건강이나 재정적 문제들, 기타 자원봉사 활동 기관의 환경이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영향을 주는 중요변수로 보고 있다(정옥희, 1993 : 33-34).

이와 같이 활동이론은 노년기에 이르러서 대체적 역할로서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이론은 노년기 이전부터 지속되어온 활동의 연속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을 각각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활동이론에 대한 검증을 주된 초점으로 하고 있다.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이론 측면에서 신증적으로 검증한 선행연구가 부족하고 또 본 이론은 생애주기에 따른 변화과정에 대해 종단연구의 방법을 취하여야 하는데 비해, 활동이론은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비교적 많으며 변수의 조작화와 측정이 지속이론에 비해 용이하고, 종단연구 뿐 아니라 횡단연구를 통하여도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활동이론에 기초하여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이 사회나 가족에 시의 역할 감소에 따른 대체물로서 자원봉사활동에 더욱 헌신하게 하며, 나이가 노인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로 검증하고자 한다.

2) 노년기 역할대체로서의 자원봉사활동

노년기 역할대체로서의 자원봉사활동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에서는 ① 역할대체로서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 또는 ② 역할대체와 자원봉사 헌신도(commitment : 봉사활동 총기간, 빈도, 1회 활동 시간)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역할대체와 관련해서는 ① 참여동기(사회적 관계유지, 사회적 역할지속 등에 초점), ② 직업유무(현재 임금근로자 vs 퇴직자나 가정주부), ③ 배우자 유무, ④ 가구형태 등을 주요 변수로 측정하고 있다.

그런데 선행연구 결과들은 노년기 자원봉사활동이 노인의 사회적 혹은 가족내 역할 감소에 따른 대체기회로서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입증하고 있거나 혹은 연구마다 상반된 결과를 세시하고 있었다.

먼저 Sainer와 Zander(1971b)는 미국 SERVE 프로그램 분석에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역할대체라는 견해를 지지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첫째, 50% 이상의 노인봉사자들이 사회적 접촉을 증진시키기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둘째, 3분의 2가 결혼하지 않았고, 셋째, 10명 중 9명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즉 퇴직상태였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봉사자의 동기와 직업, 가족 상태에 기초해 볼 때 자원봉사는 노인들의 사회적 역할 상실에 대한 대체물로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이를 일관성있게 지지하지 못하였다. 1974, 1981년에 각각 조사된 National Council on the Aging(NCOA)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퇴직과 자원봉사활동의 경향은 관계가 없었으며, 특히 1981년 데이터의 경우 노인 봉사자중 24%가 퇴직자, 25%가 근로자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단, 자원봉사 참여여부에 퇴직여부가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지만, 퇴직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헌신할 수 있었음을 밝혔다(근로자의 5%, 퇴직자의 10%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에 투입함(Harris, 1972 : 1982)).

Chambre(1984)는 1974년 ACTION에서 조사한 60세 이상 4,339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 및 자원봉사 헌신정도와 활동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역할대체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검증하였다. 먼저, 분석대상 중 16.4%(711명)만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퇴직여부나 결혼 우무, 가구형태와 봉사활동 참여와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오히려 봉사활동 참여 결정요인으로 활동이론 변수보다는 교육수준변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봉사활동 헌신정도에도 부분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활동이론 변수 중 퇴직이나 가정주부와 같이 현재 직업이 없는 경우에 더 많은 시간을 자원봉사활동에 할애하고 있었으며, 이는 Harris(1982)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헌신정도는 활동이론 변수만으로 유의미한 질론을 제시할 수 없으며, 오히려 수입이 높을수록 높은 헌신정도를 보였다고 하였다.

Chambre(1993)는 결국 역할상실이 자원봉사활동을 반드시 촉진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노인봉사자의 봉사활동 동기면에 있어서도 '시간이 많아서' '외로움을 덜기 위해서' 등이 많았고, 연령이나 건강과 상관없이 결혼한 사람이나 직업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Kim과 Hong(1997)은 1989년 미국 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데이터 분석을 통해 퇴직 여부와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및 지속성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11,040명의 대상을 퇴직자(7,544명)와 비퇴직자(3,496명)로 구분하였는데, 이 가운데 퇴직자의 8%, 근로자의 12.2%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람이 퇴직한 사람보다 높은 참여율과 지속정도를 보였으며, 난 퇴직자중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봉사활동에 대한 시간투입이 많았다.

국내 선행연구들에서는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근거로 활동이론을 모두 제시하고 있으나 이 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이 노년기 역할대체의 기회를 제공하는지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없었다. 단, 자원봉사 참여여부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노인 개인의 특성 요인들을 세한적으로나마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박주문(1999)의 연구에서 배우자 유무는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즉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이 자원봉사활동에 덜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노인들의 진직 유무에 있어 전에 직장생활을 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원봉사활동에 더 참여하겠다는 응답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현재 봉사활동 참여 유무보다는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조사한 것으로 조사결과의 신뢰도에 제한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윤민혁(2000) 연구의 경우 노인들의 자원봉사 참여여부와 지속성에 노인 개인특성요인과 동기 및 업무특성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는데, 개인특성요인 중 연령면에서 64세 이하 젊은 연령층이 봉사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었으며, 사회적 인정동기, 사회적 책임감 등 이타적 동기가 자원봉사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기다 퇴직여부, 가구형태 등의 변수는 조사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자원봉사활동 참여 결정요인과 헌신요인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특히 자원봉사 헌신과 관련해 활동이론변수들은 연구결과마다 상반된 결과 내지는 부분적 입증만 보고되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노인들의 자원봉사 헌신은 노인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봉사활동 자체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들의 자원봉사 헌신에 미치는 요인을 활동이론 변수와 함께 학력, 경제수준 등의 인구학적 변수 및 봉사활동 특성 자체변수를 고려하고자 한다.

3) 자원봉사활동 헌신(commitment)과 생활만족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높다(Luciani, 1992 등)는 일반적인 연구결과들에서 한결음 나아가 과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헌신의 정도와 생활만족도의 관계는 어떠한가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한다. 봉사활동에 대한 헌신은 시간투입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Musick et al., 1999), 총 봉사활동 기간과 봉사활동 빈도(주 몇 회, 월 몇 회 등) 및 1회당 봉사활동 시간 등으로 측정되고 있다.

Willigen(2000)은 노인들이 젊은층에 비해 직업의 연속이나 자녀양육과 같은 일을 덜하게 되므로 자원봉사활동에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Willigen(2000)은 활동이론 등에 기초해 볼

때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은 젊은층과는 다른 요인에 의해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되며 그 효과 또한 다를 것이라는데 확인하여, '86년(3,617명)과 '89년(2,867명)에 걸쳐 조사된 패널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60세 이상 노인과 60세 이하 성인의 자원봉사활동여부 및 봉사시간 등에 의해, 현재의 생활만족도와 인지된 신체적 건강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두 연령층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60세 디만 성인의 봉사시간과 생활만족도는 비선형적(nonlinear)이었으나, 60세 이상 노인봉사자는 봉사시간과 생활만족도가 선형관계를 보였다. 결국 젊은 층보다 노인들이 봉사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기여하는 등 봉사활동에 대한 현신으로 인해 거기서 오는 긍정적 효과를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원봉사 시간이 노인 봉사자의 생활만족도와는 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Musick et al., 1999).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노인봉사자의 생활만족도에 관련된 연구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봉사활동 경력이나 활동시간, 활동빈도 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결과는 상이하였다.

김필례(2001)는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이용자 중 60세 이상 130명을 대상으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09점으로 비교적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원봉사활동 관련 요인 중 첫째, 자원봉사 참여동기에서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감',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얻기 위함'이라고 대답한 노인봉사자의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둘째, 봉사경력이 적을수록, 자원봉사 참여횟수가 적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어 바해 김민연(1998)은 환경봉사대, 적십자사, 사랑의 전화, 종교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60세 이상 노인자원봉사자를 조사한 결과, 생활만족도는 4.0점으로 매우 높았으며 자원봉사활동 참여정도가 많을수록, 자원봉사의 경력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윤영호(1995)는 광주광역시 60세 이상 노인 300명(봉사자 100명, 비활동자 185명)을 조사한 결과 자원봉사활동 노인이 비활동노인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또 자원봉사활동이 정년퇴직 후 노인의 일상생활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자원봉사활동이 성년퇴직 후 상실된 활동을 대체함으로써 역할 상실이나 사회와 가정으로부터의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므로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설명이다(윤영호, 1995). 그러나 자원봉사 참여횟수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주 2회 이상 참여한 경우가 한 달에 한번 참여한 경우보다 생활만족도 평균값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봉사활동의 현신정도가 노인자원봉사자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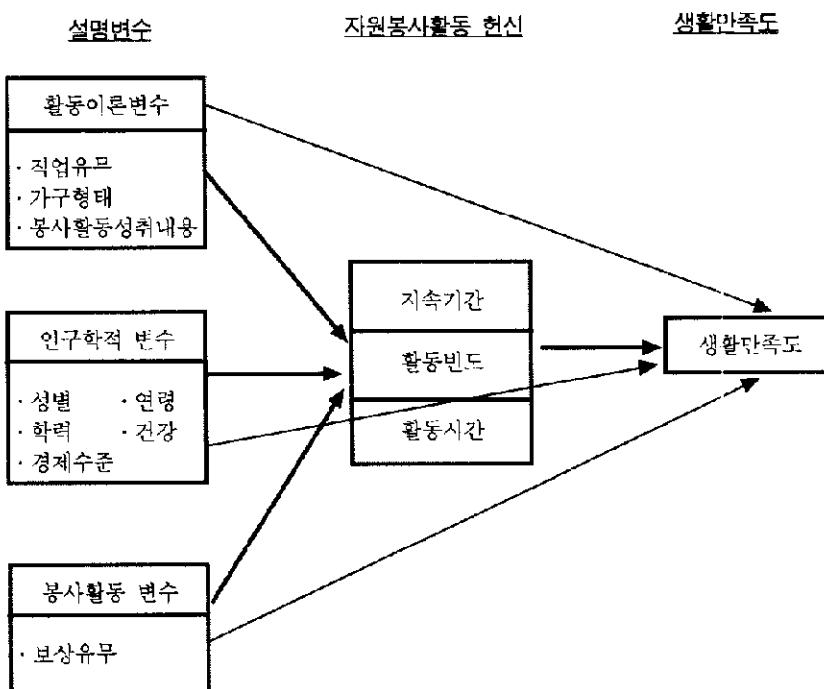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조기퇴직이나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해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해 재취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재취업보다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여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5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여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 기관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서울시내 25개 구 자원봉사센터이며,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들이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 배포 및 수집은 센터 운영상의 사정 등으로 응답을 거부한 3개소를 제외하고, 시자원봉사센터 50부 및 각 구자원봉사센터에 15부씩 할당하여 총 380부를 배포하였다. 이 가운데 총 224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9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기간은 2002년 10월 21일부터 2003년 1월 20일까지였다.

2) 분석모형 및 변수설명

〈도표 1〉 분석 모형



(1) 종속변수

본 연구는 노년기 이후 감소 혹은 상실된 역할에 대한 대체로 사회적 활동을 계획함으로써 노인의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활동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혹은 가정에서의 역할 감소가 노인으로 하여금 자원봉사활동에 보다 더 헌신하게 함으로써 현재의 생활에 대해 더 높은 만족감을 얻게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노인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되며 이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헌신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생활만족도 질문은 '현재 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와 같은 단일문항으로 측정된 경우(Willigen, 2000; 김민연, 1998), 생활만족도 척도(윤진·최성재의 생활만족도 척도 11개 문항 등)를 사용한 경우(윤영호, 1995; 정경아, 2000; 김필현, 2001) 등 다양하였다.

본 조사에서 사용된 노인 생활만족도 척도는 김정순(1988)의 바사학의논문에서 개발된 노인의 자아통합감 척도($\alpha = .93$)의 하위영역인 현재생활만족도 척도를 활용하였다. 김정순의 자아통합감 척도는 6개 하위영역에 총 3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가운데 현재생활에 대한 만족은 가장 비중있는 영역으로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자료의 분석결과 생활만족도의 내적신뢰도는 $\alpha = .78$ 로 높았다.

또 하나 본 연구의 중요한 조절변수이자 종속변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현신'으로서, 봉사활동에 대한 헌신(commitment)은 시간투입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데(Musick et al., 1999) 착안하여 3가지 변수로 측정하였다. ① 지속기간(Duration)은 현재까지의 총 자원봉사활동 기간을 '년 월' 단위로 측정하였으며, ② 활동빈도(Freq)는 얼마나 자주 봉사활동에 참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월 몇 회'로 측정하였다. ③ 활동시간(Time)은 한번 봉사활동을 할 때 투입되는 활동시간으로 '1회당 시간'으로 측정하였다.

(2) 독립변수

① 활동이론변수 : 직업유무, 가구형태, 성취내용

활동이론은 노년기 가족내 역할이나 사회적 역할의 감소 혹은 상실에 따른 대체역할로서 사회적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가족내 역할이란 자녀양육 또는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년기에 이르면 자녀의 성장, 배우자의 사망 등에 의해 그 역할이 감소 혹은 상실되게 된다. 사회적 역할의 감소 혹은 상실이란 퇴직으로 인한 경제활동 감소와 동료의 사망 등에 의해 사회적 관계가 축소됨을 의미한다. 이에 앞서 선행연구에서는 주요 활동이론 변수를 배우자 유무, 가구형태, 봉사를 포함한 현재 직업여부를 가장 중요한 변수로 삼고 있으며, 여러 가지 자원봉사 참여동기 중 사회적 참여 동기를 주요 활동이론 변수의 하나로 측정하고 있다(Sainer and Zander, 1971 ; Harris, 1982 ; Chambre, 1984, 1993).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직업유무와, 가구형태(독거, 노인부부, 노인 및 자녀가구) 및 봉사활동 성취 내용 중 사회적 성취를 활동이론 변수로 선택하였다. 여기서 봉사활동 성취내용을 주요 변수로 선택한 이유는 자원봉사동기는 최초의 자원봉사 참여 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나 본 연구 대상은 이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대상이며, 자원봉사의 현신 정도에는 봉사활동 동기보다는 봉사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성취의 내용에 의해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 의해서이다.

활동이론의 시각에 의한다면, 직업이 없고 혼자 사는 노인일수록, 그리고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참여 기회를 얻는다는 노인일수록 봉사활동에 보다 더 현신할 것이며 이로 인해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② 인구학적 변수 : 성별, 연령, 학력, 건강수준, 경제수준

일반적으로 노인 자원봉사활동은 건강하고 고학력이며 경제수준이 비교적 높은 집단에서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선행연구들의 일관적인 결과였다(Kim & Hong, 1997). 성별이나 연령은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연령과 건강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

이 좋지 못하고 이에 따라 봉사활동 참여율도 저조하다는 것이다(Chambre, 1984 ; Willigen, 2000).

성별은 남자 1, 여자 0으로 측정하였고, 연령은 현재 나이로 측정하였다. 특히 연령은 노인의 경우 퇴직이나 건강수준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Chambre, 1984) 주요 통제변수로서 분석되었다. 학력은 국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이상으로 측정하였고, 건강수준은 '매우 나쁘다'부터 '매우 건강하다'의 5점 수준으로, 경제수준 역시 '매우 어렵다'부터 '매우 부유하다'까지 5점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③ 봉사활동 변수 : 봉사활동에 대한 보상유무

선행연구들은 봉사활동 자체의 특성에 따라 봉사활동 지속성이나 생활만족에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봉사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효과는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이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보상유무는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유·무형의 보상을 포함하여 보상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1, 0)로 측정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방법으로는 첫째, 노인자원봉사자의 일반적 특성과 이들의 자원봉사활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활동이론변수에 대한 검증과정으로, 활동이론변수와 자원봉사활동 현실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직업유무, 가구형태, 성취내용에 따른 지속기간과 활동빈도 및 활동시간의 차이를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이들 활동이론변수가 노인의 연령과 성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한 후 자원봉사현신 정도를 비교하였다. 이후 자원봉사현신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자원봉사현신 변수인 지속기간과 활동빈도 및 활동시간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t검증을 시행하였다.

셋째, 노인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현신정도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각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노인자원봉사자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자원봉사현신 변수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분석을 위해 SPSS 11.0과 AMOS 4.0을 사용하였다.

4. 분석결과

1) 기술적 분석결과

조사대상은 55세 이상 노인자원봉사자 192명이며 성별로는 남자노인이 92명(47.9%), 여자노인이 100명(52.1%)이었다. 연령별로는 55세에서 59세 미만의 젊은 노인층이 36.5%로 가장 많았으며, 60세에서 65세 미만 노인이 23.4%, 65세에서 70세 미만 노인이 20.3%, 70세 이상의 고령 자원봉사자도 19.8%나 되었다. 학력수준별로는 전분대졸 이상의 고학력 노인이 48.5%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노인자원봉사자의 건강상태로 건강이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7.8%로 나타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이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건강상태는 그리 좋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경제수준에서는 보통정도가 75%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노인도 35명(18.3%)이나 되었다.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응답자의 21.4%만이 직업을 갖고 있었으며 나머지 78.6%는 직업이 없는 상태였다. 이는 퇴직에 의한 직업의 상실 뿐 아니라 가정주부로서 직업이 계속 없는 경우까지 포함한 것이다. 가구형태에서는 미혼 또는 기혼자녀와 살고 있는 노인이 가장 많았으며(45.8%), 노인부부 가구는 44.8%였고,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은 9.4%에 불과했다.

이상의 기술적 분석결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의 특성은 남녀 성별 및 연령별로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직업이 없는 노인이 많았고 경제적 수준은 보통수준이었다. 가구형태로는 노인과 자녀가 함께 사는 2세대 이상 가구형태가 가장 많았다. 특징적인 것은 70세 이상의 고령 노인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들의 건강이 비교적 좋지 못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표 2〉는 노인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 현황에 대한 일반적 기술이다.

먼저 이들의 최초 봉사활동 동기로는 '나를 사람을 위해 무언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라는 이타적 동기가 가장 많았다(44.3%). 또 본인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 또는 습득하고자 하는 동기가 22.1%였다. 그리고 활동이론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적 동기와 관련해, '사회적 책임감'(2.6%)이나 '다른 이들과의 교제'(1.6%)는 매우 마미하였다.

그러나 '봉사활동을 통해 얻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회참여'(28.1%)가 가장 많았다. 이와 더불어 '폭넓은 인간관계'(9.4%) 및 '타인으로부터의 인정감'(6.3%)을 포함한 '사회적 성취'(43.8%)가 '개인적 성취'(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평가 22.9%, 사아실현의 기회 13.0%) 35.9%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혹은 계기)와 봉사활동을 통해 실제 얻게 되는 내용은 별개일 수 있으며, 나아가 봉사활동 참여 결성요인과 지속요인은 다소 상이할 수 있을 것임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표 1) 노인자원봉사자의 일반적 특성(N=192)

변수		빈도(%)	변수		빈도(%)
성별	남	92(47.9)	가구	독거	18(9.4)
	여	100(52.1)		노인부부	86(44.8)
연령	55세이상~60세미만	70(36.5)		노인+자녀(미·기혼)	88(45.8)
	60세 ~65세미만	45(23.4)	건강	매우 나쁨	24(12.5)
	65세 ~70세미만	39(20.3)		나쁜 편	111(57.8)
	70세 이상	38(19.8)		보통	45(23.4)
직업	있다	41(21.4)	경제	건강한 편	9(4.7)
	없다	151(78.6)		매우 건강	3(1.6)
학력	국어이하	14(6.9)	경제	매우 어려움	3(1.6)
	중졸	19(10.1)		못사는 편	32(16.7)
	고졸	66(34.5)		보통	142(74.0)
	전문대졸 이상	93(48.5)		잘사는 편	12(6.3)
				매우 부유함	3(1.6)

노인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 영역으로는 사회복지(영·유아, 아동, 장애인, 노인복지 시설봉사 등) 영역이 31.1%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사회(거리청소, 환경보호, 교통안내 등) 봉사가 18.7%, 공공기관(구청, 동사무소, 각종 행사지원 등) 봉사가 16.7%였다. 이·미용봉사나 통·번역봉사 등 전문자원봉사도 11.5%를 차지하고 있었다.

자원봉사활동의 헌신을 측정하는 변수로서 현재까지의 봉사활동 지속기간을 살펴보면, 평균 기간은 4.4년이었으며, 1년 이상 5년 미만의 노인봉사자가 63.5%로 가장 많았다. 이 기간은 조사대상기관인 서울시내 각 구 자원봉사센터의 평균 설립기간이 2년에서 6년 미만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0년 이상 장기간 동안 봉사활동을 해온 노인자원봉사자도 13.3%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조사대상자의 연령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의 지속기간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활동빈도는 월 단위로 측정하였으며, 1주일에 한번 이상 즉 한 달에 4번 이상 활동을 한다는 봉사자가 69.8%에 달했다. 적어도 한 달에 1번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97%의 노인자원봉사자들이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활동시간에 있어서는 1회에 투입되는 활동시간을 측정하였으며, 1회 평균 활동시간은 3.16시간이었다. 구체적으로 1회 4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다는 응답자는 40.6%로 가장 많았고 1시간 미만은 2.6%에 불과했다.

(표 2) 노인 자원봉사 활동현황(N=192)

구 분	빈 도 (%)	구 분	빈 도 (%)
활동 봉기		활동 지속기간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음	85(44.3)	1년 미만	21(10.9)
지식이나 경험 활용 및 습득	43(22.4)	1년 이상 ~ 5년 미만	122(63.5)
여가를 보람있게 보내고자	35(18.2)	5년 ~ 10년	23(12.0)
주변의 권리	13(6.8)	10년 ~ 15년	14(7.3)
신앙의 실천	8(4.2)	15년 이상	12(6.3)
사회적 책임감	5(2.6)		
다른 이들과의 교제	3(1.6)		Mean = 4.4년
활동 내용		활동 빈도	
사회복지	66(34.4)	1주일에 한번 이상	134(69.8)
시역사회	36(18.7)	한 달에 2-3번	34(17.7)
공공기관	32(16.7)	한 달에 1번	20(10.4)
전문기술봉사	22(11.5)	6개월에 1번	4(2.1)
상담 및 교육	19(9.9)		
보건 및 의료	17(8.9)		
활동을 통한 성취내용		활동 시간	
지속적인 사회참여	54(28.1)	1시간 미만	5(2.6)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평가	44(22.9)	1시간~2시간 미만	37(19.3)
여가시간 활용	39(20.3)	2시간~4시간 미만	72(37.5)
자아실현의 기회	25(13.0)	4시간 이상	78(40.6)
폭넓은 인간관계	18(9.4)		
타인으로부터의 인정감	12(6.3)		Mean = 3.16시간

2) 활동이론 변수와 자원봉사활동 헌신

활동이론 변수들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헌신정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직업유무, 가구형태 및 봉사활동 성취내용에 따른 봉사활동 지속기간, 활동빈도, 활동시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활동이론의 설명이 예측력이 있다면 직업이 없는 노인, 혼자 사는 노인,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성취를 얻는 노인이 그렇지 않는 노인보다 봉사활동에 더욱 헌신적일 것이다. 그러나 분석결과는 이러한 가정들의 일부분만을 설명할 수 있었다.

먼저 직업유무에 따른 지속기간의 차이에 있어, 직업이 있는 노인의 평균 지속기간은 2.4년, 직업이 없는 노인의 평균 지속기간은 2.3년으로 직업유무에 따른 지속기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이 퇴직이나 직업의 상실 이후 새롭게 시작하는 대체적 활동이기보다는 이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던 것으로, 노인들의 봉사활동 지속기간은 직업의 유무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활동빈도와 활동시간에 있어서는 직업이 없는 노인이 직업이 있는 노인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유무가 봉사활동 지속기간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반면, 직업이 없는 노인의 경우 건강 등의 일정한 조건이 동일하다면 투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직업이 있는 노인보다 많기 때문에 활동빈도와 활동시간에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Harris(1982)나 Chambre(1984)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것이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지속기간, 활동빈도, 활동시간 모두에서 어떠한 차이도 보이지 않았다. 봉사활동 후 성취내용에 따라서는 지속적인 사회참여 등의 사회적 성취를 얻는 노인들이 자기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 등의 개인적 성취를 얻는 노인들보다 봉사활동 지속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활동빈도나 활동시간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활동이론변수 가운데 현재 직업유무는 연령과 성별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연령의 경우 임금근로자는 퇴직연령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며, 자영업일지라도 고령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성별에 있어서도 여성노인의 경우 전업주부를 지속하여 온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직업이 없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변수를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표 4)는 연령과 성별을 통제한 상태에서 직업유무에 따른 봉사활동 현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하지만 직업있는 65세 이상과 여성의 분석결과는 각 셀의 수가 적어 분석결과가 일반화되기 어렵다.

분석결과, 65세 미만의 경우 직업유무에 따라 지속기간이나 활동빈도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활동시간에 있어서는 직업이 없는 노인의 활동시간이 직업이 있는 노인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직업이 없는 노인의 봉사활동 지속기간이 약간 높았으며, 활동빈도 역시 직업이 없는 노인이 더 높았다. 그러나 활동시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높은 연령일수록 직업 유무와 상관없이 건강이 상대적으로 나빠짐에 따라 많은 시간을 활동시간에 투입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녀 노인 모두 직업이 없는 경우에 활동빈도가 더 높았으며, 지속기간이나 활동시간에 있어서는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활동이론 변수만으로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 현신에 대한 유의미한 결론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직업유무의 경우 직업이 없는 노인이 직업이 있는 노인보다 활동빈도나 활동시간에 있어 더 많은 투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을 통제할 경우 활동빈도는 65세 이상 노인에서 활동시간은 65세 미만의 노인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 성별을 통제할 경우에도 직업유무는 활동빈도에 있어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한편, 봉사활동에 따른 사회적 성취감은 지속기간에만 유의미하였으며, 가구형태는 어떠한 봉사활동 현신에서도 차이가 없었다. 결국 활동이론 변수 가운데 일부분만이 부분적인 자원봉사활동 현신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표 3〉 활동이론 변수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헌신정도(N = 192)

구 분	Duration(년)		Freq(회/1개월)			Time(시간/1회)		
	N(Mean)		N			N		
직업유무 있다 없나	41(2.4) 151(2.3)	F=0.13	4회이상 2-3 1회미만			4시간이상 2-3 1시간미만		
			21 113	9 25	8 12	x ² =7.4*	8 70	22 50
가구형태 독거 노인부부 노인+자녀	18(2.0) 86(2.3) 88(2.4)	F=1.46	4회이상 2-3 1회미만			4시간이상 2-3 1시간미만		
			12 59 63	3 17 14	2 9 9	x ² =.44	9 33 18	5 33 34
성취내용 사회적 성취 ^{a)} 개인적 성취 ^{b)} 여기활용	84(2.5) 39(1.8) 69(2.4)	F=7.6**	4회이상 2-3 1회미만			4시간이상 2-3 1시간미만		
			55 30 49	16 7 11	11 1 8	x ² =3.7	35 14 29	29 15 28

* p < .05, ** p < .01

a) 사회적 성취 : 자속적인 사회참여, 폭넓은 인간관계, 타인으로부터의 인정감

b) 개인적 성취 :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평가, 자아실현의 기회

〈표 4〉 연령별/직업유무별 자원봉사활동 헌신정도(N=192)

구 분	직 업 유 무						통 계 값		
	있 다		없 다		Duration	Freq			
	Duration	Freq	Time	Duration	Freq	Time	tduration	x ² frec	x ² time
65세 미만 (n=115)	31(2.4)	16 12	5 26	84(2.5)	56 27	41 43	-1.16	.98	10.1**
65세 이상 (n= 77)	10(2.6)	5 5	3 7	67(1.9)	57 10	29 38	1.8†	6.8*	.63
남 (n=92)	31(4.4)	14 14	7 24	61(3.7)	45 16	20 41	.56	4.8*	1.0
여 (n=100)	10(5.0)	7 3	1 9	90(4.8)	68 21	50 40	.13	7.5**	.2

† p < .10, *p < .05, **p < .01

3) 자원봉사활동 현신과 생활만족도

조사대상 192명의 노인자원봉사자의 생활만족도 점수는 35점 만점에 평균 25.7점이었다.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면 노년기 생활만족도가 증가한다는 활동이론의 설명을 근기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헌신정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지속기간과 활동비도 및 활동시간에 따른 생활만족도 점수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자원봉사 시간이 노인봉사자의 생활만족도와 관계가 없다는 Musick et al(1999)의 연구결과나 윤영호(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 자원봉사자들의 생활만족도에는 자원봉사활동 이외에 더 중요하고 다양한 외생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표 5〉 자원봉사활동 헌신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구 분	생활만족도 (총점 35)		
	N	평균	t
<i>Duration</i>			
5년 미만	142	25.5	- .62
5년 이상	49	26.0	
<i>Freq</i>			
월 4회 미만	54	26.0	- .64
월 4회 이상	134	25.6	
<i>Time</i>			
1회 4시간 미만	113	25.5	- .77
1회 4시간 이상	78	25.9	

4) 자원봉사활동 헌신과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금까지 노인에게 있어 자원봉사활동은 노년기 역할상실에 따른 대체적인 사회활동으로서, 이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보다 많이 투입함으로서 노인의 생활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활동이론을 기초로 하여, 활동이론변수에 따른 봉사활동 헌신의 차이와 봉사활동 헌신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여 보았다. 분석결과 활동이론 변수 중 직업유무와 사회적 성취만이 부분적으로 봉사활동 헌신에 차이를 보였으며, 봉사활동 헌신 변수는 어떤 것도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활동이론 변수 중 직업유무나 사회적 성취만이 자원봉사활동이 대체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비공식 역할인 가족내 역할은 대체하지 못하고 있어 활동이론이 부분적으로만 적용될 수 있다고 하겠다. 자원봉사활동이 가족내 역할상실을 대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가족역할의 특성에서 오는 것인지는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자원봉사활동이 생활

민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 노인의 삶의 질이 자원봉사활동보다는 기본적 요인 즉 경제적 요인이나 가족관계적 요인에 더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 판단된다.

이에 우리나라 노인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헌신과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원봉사활동 헌신 중 활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봉사활동 성취내용 중 사회적 성취, 개인적 성취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봉사활동에 대한 기관의 지지나 물질적 지원 등의 보상이 지속기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활동빈도에 있어서는 직업이 있는 경우가 직업이 없는 경우보다 활동빈도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남자 노인이 여자 노인에 비해 활동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건강에 있어서도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활동빈도가 높았으며, 봉사활동에 대한 보상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활동시간에 있어서는 남자 노인이 여자 노인에 비해 짧은 시간동안 활동하고 있었으며, 교육수준은 국졸 이하의 노인에 비해 고학력일수록 봉사활동 시간에 많이 투입하고 있었다.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봉사활동에 대한 시간투입이 많다는 결과는 Kim과 Hong(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표 6〉 자원봉사활동 헌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구분	기간	빈도		시간
		β	β	
활동이론 변수	직업 ¹⁾	-.03	-.25**	-.11
	가구형태 ²⁾			
	늦거	-.07	-.09	.03
	노인부부	-.06	-.06	-.02
	성취내용 ³⁾			
	사회적성취	.32**	-.08	.05
인구학적 변수	개인적성취	.30**	.02	.05
	성별 ⁴⁾	-.09	-.15*	-.19*
	연령	.01	.12	.03
	건강수준	.12	.15*	-.08
	경세수준	.02	-.07	.12
	교육수준 ⁵⁾			
봉사활동 변수	중졸	.09	-.04	.39**
	고졸	.05	-.07	.63**
	전문대학 이상	.12	.05	.79**
보상 ⁶⁾	보상	.17*	.18*	.10
		A.R ² = .05 F = 1.77(p<.05)	A.R ² = .09 F = 2.49(p<.01)	A.R ² = .19 F = 4.52(p<.00)

* p < .05, ** p < .01

1) 직업 : 0=없음

2) 가구형태 : 0=노인+자녀

3) 성취내용 : 0=여가활용

4) 성별 : 0=여성

5) 교육수준 : 0=국졸[○]하

6) 보상 : 0=없음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헌신이 노인자원봉사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델 1과 비교하여 자원봉사 헌신 변수를 투입한 모델 2의 모델 설명력은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어떠한 변수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즉, 자원봉사활동 헌신은 노인자원봉사자의 생활만족도에 아무런 조절효과도 보이지 않았다.

노인 자원봉사자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요인은 경제수준으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증가하였다. 가구형태에 있어서도 혼자 사는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자녀들과 함께 사는 노인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봉사활동에 대한 헌신이 생활만족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양적인 시간의 투입과 생활만족도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일부 선행연구들(Musick et al., 1999)과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7〉 노인자원봉사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구분	생활만족도	
	모델 1. β (s.e)	모델 2. β (s.e)
활동이론 변수	직업 ¹⁾	-.05 (.71)
	가구형태 ²⁾ 독거 노인부부	-.20 (.97)** -.02 (.55)
	성취내용 ³⁾ 사회적성취 개인적성취	.06 (.69) .03 (.75)
	성별 ⁴⁾	-.08 (.59)
	연령	.01 (.04)
	건강수준	.10 (.34)
인구학적 변수	경제수준	.33 (.48)**
	교육수준 ⁵⁾ 중졸 고졸 전문대졸 이상	.34 (.47)** .04 (1.3) .11 (1.2) .12 (1.2)
	봉사활동 변수	보상 ⁶⁾
		-.13 (.54)
	봉사활동 헌신 변수	기간 빈도 시간
		.02 (.05) .03 (.25) -.00 (.30)
	A.R ² = .22 F = 5.20(p<.00)	A.R ² = .20 F = 4.17(p<.00)

** p < .01

- 1) 직업 : 0=없음
4) 성별 : 0=여성

- 2) 가구형태 : 0=노인+자녀
5) 교육수준 : 0=국졸이하

- 3) 성취내용 : 0=여가활용
6) 보상 : 0=없음

5. 결론

본 연구는 활동이론을 기초로 우리나라 노인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헌신 요인과 생활만족요인을 분석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활동이론변수인 직업유무, 가구형태, 봉사활동 성취내용은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을 부분적으로만 설명하고 있었다. 직업유무의 경우 직업이 없는 노인이 자원봉사 활동빈도와 활동시간에 더 많이 헌신하고 있었으며,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어떠한 차이도 없었다. 봉사활동 성취내용 중 사회적 성취는 자원봉사 지속기간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한편, 자원봉사활동 헌신 정도와 노인 자원봉사자의 생활만족도와는 아무런 관계도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자원봉사헌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속기간에는 봉사활동 성취내용 중 사회적 성취와 개인적 성취가 여가활용에 비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봉사활동에 대한 보상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활동빈도는 직업이 없는 노인, 여성노인, 건강이 좋을수록, 봉사활동에 대한 보상이 있을수록 활동빈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활동시간에는 여성노인과 중졸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노인이 봉사활동시간에 더 많이 투입하고 있었다.

셋째, 노인자원봉사자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는 혼자 사는 노인이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낮았으며,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그리고 봉사활동과 관련된 변수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노인 자원봉사활동이 노년기 역할상실에 대한 대체역할로서 기능하다는 것이 부분적으로 설명되나, 이러한 대체적 활동을 지속할수록 생활만족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활동이론의 설명은 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헌신이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자원봉사자에게 있어 자원봉사활동은 아직 까지 그들의 생활에 매우 중요한 비중으로 차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기간이 짧았으며, 특히 노인에게 있어 자원봉사활동이 보편화된 것은 최근 몇 년에 불과하다는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또한 봉사활동에 대한 시간의 투입과 생활만족도가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것은, 노인 자원봉사자에게 있어 봉사활동은 시간의 투입보다는 봉사활동의 질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노인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단순한 여가시간의 활용뿐 아니라 개인적 성취이션 사회적 성취이건 무엇인가 그들에게 의미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보상을 통해 지속적 관심과 지지적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원봉사센터나 봉사기관에서 노인 자원봉사자에게 활동기간이나 빈도 혹은 시간을 강조하기보다는, 노인 자원봉사자들에게 그들의 봉사활동 의미를 지속적으로 확장시키고 끊임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여줄 필요

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둘째, 지속적인 노인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년기 새로운 역할로서보다는 노년기 이전부터의 경험이 보다 더 밀접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직업이 없는 경우 활동빈도나 활동시간에 디 많은 투입이 가능할 수 있었으나, 지속기간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노년기에 이르러서 뿐 아니라 중년기 혹은 그 이전부터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상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노인 자원봉사 분야에 있어서 활동이론을 기초로 한 최초의 실증연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그러나 보다 더 정교한 이론 검증을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비교분석, 중단연구에 의한 자원봉사활동 참여노인의 생활만족도 변화 등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미혜·서혜경, 2002.『노인복지실천론』, 동인출판사.
- 김민연, 1998. "노인자원봉사활동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우, 1998.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심리사회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필례, 2001.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송파노인복지관 이용자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란, 2000.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유형에 따른 자원봉사만족도 비교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용순, 2001. "노인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실증적인 분석연구 - 안양시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통권40호, pp. 89-117.
- 비주문, 1999. "노인자원봉사조직 참여의 결정요인 - 인천광역시 동구노인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1권, 제2호(통권26호), pp. 245-261.
- 백순명, 2000. "노인전문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노인의 자원봉사 관행태도에 관한 질적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볼런티어 21, 2002. 「한국인의 자원봉사 및 기부현황」.
- 윤미혜, 1995. "노인의 고독감과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민혁, 2000. "노인자원봉사자의 참여도와 지속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영호, 1995.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수, 2001. "한국 노인자원봉사의 의미와 실태", 『노인복지연구』, 여름호, pp. 25-45.
- 장인협·최성재, 1996.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경이, 2000. "노인 자원봉사활동이 노인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

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희. 1993. "노인자원봉사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성심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노년학회 편. 2000. 『노년학의 이해』, 대영문화사.
- Adelmann, P. K. 1994. "Multiple rol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 national sample of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49: 277-285.
- Harris, L. and Associates. 1974. *The myth and reality of aging in America*, National Council on the Aging, Inc, Washington, D.C.
- Harris, L. and Associates. 1982. *Aging in the eighties : America in transition*, National Council on the Aging, Inc, Washington, D.C.
- Havighurst, R. J., B. L. Neugarten, and S. S. Tobin. 1968. "Disengagement and patterns of aging." In Neugarten, B. L.(Ed). *Middle Age and Aging : A Reader in Social Psychology*. Chicago, IL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erzog, A. R., R. L. Kahn, J. N. Morgan, J. S. Jackson, and T. C. Antonucci. 1989. "Age differences in productive activities." *Journal of Gerontology* 44(4): 129-138.
- Kim, Soo Yeon and Goo-Soong Hong. 1997. "Elderly volunteers : Analysis of participation and time community." *Consumer Interests Annual* 43.
- Luciani, Johnelle. 1992. "Motivational Determinants of Volunteers".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 Lucy Rose Fischer, Daniel P. Mueller, and Philip W. Cooper. 1991. "Older volunteers : A discussion of the Minnesota Senior Study." *The Gerontological Society of America* 31(2): 18-194.
- Marieke Van Willigen. 2000. "Differential benefits of volunteering across the life course." *Journal of Gerontology* 55B(5) : 5308-5318.
- Musick, M., A. R. Herzog, and J. S. House. 1999. "Volunteering and mortality among older adults: findings from a national sample." *Journal of Gerontology* 54B: 173-180.
- Sainer, J., and M. L. Zander. 1971. *SERVE : Older volunteers in community service*. Community Service Society of New York.
- Susan M. Chambre. 1984. "Is volunteering a substitute for role loss in old age? An empirical test of activity theory." *International Association Gerontology* 24(3): 292-298.
- Susan M. Chambre. 1993. "Volunteerism by elders : Past trends and future prospects." *The Gerontological Society of America* 33(2): 221-228.
- Willigen, Marieke Van. 2000. "Differential benefits of volunteering across the life course." *Journal of Gerontology* 55B(5) : 5308-5318.

An Empirical Study of Elderly Volunteering Commitment and Their Life Satisfaction Based on Activity Theory

Kim, Mee Hye

(Associate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Jung, Jin Kyung

(Doctoral Candidate, Ewha Womans University)

Activity theory explains that the old people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y as a role-substitute from loss of roles given by work and family. It is possible to enhance their life satisfaction through these activities. Based on this activity theory, this study aims at explore the role substitute of voluntary activities and to analysis whether volunteering commitment has an effect on life satisfaction.

Data were collected by using survey questionnaires to the elderly over 55 years old who participated in voluntary activity at 25 Volunteer Centers in Seoul. The Activity theory was operationalized by job or joblessness, family type, achievement type obtained through voluntary activity.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Job or joblessness has effect on the activity frequency and activity time. (2) Social achievement after voluntary activity has effect on the duration only. (3) And the family type did not have any effect. These three variables of activity theory do not have an effect on life satisfaction.

The elderly volunteering commitment was explained by variables other than activity theory such as reward, health, education, sex. And the elderly volunteer's life satisfaction were affected by the family types and their economic status.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Korean elderly voluntary activities could be explained partially by Activity theory. Also for these elder volunteers's life satisfaction, qualitative respects such as achievements through voluntary activity, and concerns and support by agencies are more important than the time they imput in voluntary activities.

Keyword : Activity theory, Continuity theory, Elderly volunteer, Volunteering commitment, Life satisfaction.